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혁신도시 시즌 2' ... 지자체 유치전 치열

## 광주·전남 공동 유치 전략 시급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등 '혁신도시 시즌 2'를 구체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유치전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거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자체 상생 모델을 보여줬던 광주시와 전남도가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과정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와 민주당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대상 기관을 분류·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현지와 여부 검토와 추가로 이전할 기관 분류와 이전 지역에 대한 용역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날인 13일 부산 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공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각 시·도와 협의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과 이 대표 측이 밝힌 추가 이전 공공기관은 122개에 달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대한적십자사,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술보증기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나주혁신도시로 추가 이전이 가능한 기관은 우체국시설관리단 등을 비롯해 정부가 새로 설립할 계획인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21개 정도가 될 것으로 전남도는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공공기관과 정부출자·투자회사까지 합치면 500개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고, 이주할 전체 인원도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2004년 1차 이전 때 153개 공공기관의 5만1000여명 보다 2배 가량 많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전국 혁신도시 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기관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로 배정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경북은 이미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충북도도 최근 혁신도시 발전토론회를 여는 등 분위기를 띄우며 수도권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북도의회의도 최근 추가 이전할 공공기관의 유치를 지원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치권 등과 연대한 유치 활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나주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상생 움직임을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광주시는 자체적으로 3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작업을 준비하고 있고, 전남도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응 논리를 세우는 등 별도로 이전 작업을 추진 중이다. 전남도는 또 해양경찰 서부정비장을 비롯한 해양치유 국립 스포츠 재활원,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 체육인 교육센터 등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본원 및 본원 이전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해양환경공단 유치는 인천과 창원 등과 경쟁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본원은 인천 등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섬 발전 연구진흥원도 경남 등과 경쟁을 벌여야 할 처지다.

따라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과거 나주 공동혁신도시 조성처럼 상생 모델 성공 경험을 살려 추가 공공기관 이전 작업도 공동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광주대교수·전국혁신도시포럼 대표)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의 규모가 충분치 않아 아직 혁신도시들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관련 사기업의 이전까지 지원해야 균형발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을 살린다는 대응적인 차원에 하루라도 빠르게 상생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관일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노랑게 노랑게 물 들었네 ... 구례 산수유 마을의 봄



맑고 파란 하늘이 펼쳐진 14일,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 마을에 상춘객들이 노란 꽃망울을 터뜨린 산수유꽃을 보기 위해 찾아들었다. 산수유꽃축제는 내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주민조례제정권 도입·자치분권 강화

당정청, 지방자치법 개정안 ... 광주시·전남도 부단체장 3명으로

인구 500만명 이하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할 경우 기존 부단체장 외에 추가로 1명의 부단체장을 둘 수 있고 500만명 이상은 2명까지 늘릴 수 있다. 또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 명칭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합의, 공개했다.

〈관련기사 3편〉

개정안은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고 주민에게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주민자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 개선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이 자치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지자체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을 1명 둘 수 있도록 했다. 인구 500만명 이상인 경우는 2명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등은 기존 2명의 부단체장에서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서울과 경기도는 기존의 부단체장 3명 외 2명을 추가할 수 있어 최대 5명의 부단체장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되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특례시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를 위해 시·도의회의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을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풀 제도의 도입 근거도 마련한다.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를 도입하는 등 지방분권의 핵심인 주민참여제도도 실질화한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한다는 취지에서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지자체장 인수위원회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민주당 조경식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 수십년 지났지만 아직 실질적인 분권과 지방자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당정청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과 지자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기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고흥 풍양농협, 지역 첫 여성조합장 탄생

3·13 전국조합장선거 ... 신인에 불리한 제도 개선해야

'3·13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결과 광주와 전남에서 당선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후보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지역 최초로 금녀(禁女)의 벽을 깨고 여성 조합장이 탄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거일이 13일에 불과해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보다 조직에 의존해 신인들이 여실히 불리한 선거제도라는 점에서 선거제도 개선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편〉

14일 광주와 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유일한 여성후보자로서 관심을 모았던 고흥 풍양농협 박미화 후보

가 당선됐다. 1988년 조합장 선거가 도입된 이후 지역 최초 여성 조합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78세로 최고령 후보자였던 김기호 후보는 광주농협 선거에서 한 자릿수 득표율(8.48%)로 낙선했다. 최연소 후보였던 김수중 후보 역시 고배를 마셨다. 김 후보는 지역 내 유일한 30대 후보자였던 그는 화순 이양정풍농협 선거에서 득표율 19.72%를 얻어 80.72% 득표율을 기록한 안상섭 당선자의 높은 벽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구(具)씨 집성촌'으로 구씨 집안간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북광주농협에서는 누적 6선에 도전한 구희호 후보가 1대 1 대결에서 27.37%의 득표율에 그쳐 구상봉 당선자에게 조합장 직을 내주게 됐다.

지역 내 최대 출마자를 기록해 경쟁률이 치열했던 광주농협에서는 7명의 후보 가운데 한진섭 현 조합장이 35.46% 득표율로 당선됐고, 전남 최고 경쟁률(6대 1)을 기록했던 나주 마한농협에서는 나운 후보가 27.0% 득표로 접전 끝에 조합장을 거머쥐었다.

단 1표 차이로 희비가 엇갈린 선거구도 있다. 해남수협 선거에서는 김성주 후보가 1020표, 박병찬 후보가 1019표를 얻어 김 후보가 조합장에 당선됐다. 화산산림조합에서는 조영길 후보가 1003표를 얻어 1000표를 얻은 2위 이종권 후보와 단 3표 차로 당선되기도 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조합장 선거 광주·전남 당선자 얼굴 12·13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 안전띠는 생명이!

## 안전벨트 매기를 생활화 합시다.

습관이 되지 않아 안전벨트를 아직도 착용하지 않으시나요?  
단, 1초만 실천하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